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1~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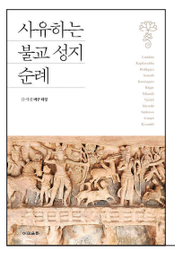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신중도의 세계	현주	불광출판사	6	거울 속의 물고기	백진순	모과나무
2	선명상 길라잡이	미래본부	조계종출판사	7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김성구	불광출판사
3	묘법연화경-한글독송본	광우,정목	김영사	8	명상맛집(세계 최고 명상가들의 25가지 명상레시피)	강민지	불광출판사
4	선정겸수	월암	담앤북스	9	부처의 인생 조언	정운	유노북스
5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	원제	불광출판사	10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비구 허정	어의운하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2	마하시사야도위빳사나 백문백답	일창 담마간다 편역	이솔	7	진짜나를 찾아라	법정	샘터사
3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강설	붓다스쿨	8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사
4	불교이후(대원불교 학술총서 37)	스티븐 배철러	운주사	9	법정 스님 숨결	변택주 지음	큰나무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10	상윳따니까야(1)	각묵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사유하며 걷는 붓다의 길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
허정 스님 지음
어의운하
1만8000원



빔비사라왕이 부처님을 마중 나온 제티얀에서 가까운 곳에 '부처님의 숲'이라고 불리는 붓다와나가 있다. 붓다와나 동굴 앞에서 기도하는 저자와 순례단 모습. 사진 제공=어의운하

'4 · 8대 성지' 넘어 새 여정 제안
경전 읽고 사유하는 깨달음의 길
"부처님 삶 본받는 것이 순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불자들에게 성지 순례는 한 번은 이루고픈 '버킷리스트'다. 그만큼 순례 상품도 다양하고 순례기도 다수 출간되어 있다.

불교 성지 순례는 흔히 4대 성지, 8대 성지라는 틀로 구성된다. 한국불교와 붓다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온 허정 스님은 '불교 성지 순례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고, 경전에 근거해 답하고 사유하며 붓다의 발자취를 좇는다. 그 결과물이 〈사유하는 불교 성지 순례〉다.

스님은 성지를 '유적지'에 한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4대 성지'라고 하면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 처음 법을 설한 사르나트(녹야원), 열반에 든 꾸시나가라를 꼽는다. '8대 성지'는 여기에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셨던 사왓티(사위성), 도리천에서 하강한 상카싸, 수많은 생명을 교화한 라자가하(왕사성), 〈보배경〉이 설해진 웨살리(바이샬리)가 포함된다.

허정 스님은 이러한 8대 성지의 경전상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한다. 부처님이 하강한 상카싸보다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자주 머물고 가르침을 전한 꼬삼비가 오히려 더 순례지로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스님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고향인 까삘라왓투와 승가 화합의 상징인 짬빠, 사리불이 태어나고 열반한 날란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남겨진 꼬삼비 등을 순례지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순례 코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유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음미함으로써 2600년의 시간을 초월해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지 순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마음으로 경전을 독송하고 그 내용을 음미해야 한다. 독송 후에는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 일행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좋다."

스님은 성지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기도하고 기념 촬영으로 순례를 마치는 대신, 각 성지에서 독송할 경전을 미리 읽고 대화 주제를 정리해 보라고 말한다. 룸비니에서는 '부처님의 출가 경로는 어떠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보드가야에서는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닫고 나서 왜 자리를 일곱 번이나 옮겨 다니셨는지', 꾸시나가라에서는 '왜 부처님은 이곳까지 와서 반열반에 드셨는지' 등을 사유해 보는 식이다.

책은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에서 시작한다. 마하보디대탑 앞에서 부처님의 6년 고행과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을 기록한 경전을 읽고 그 의미를 새긴다. 이어 수자타가 부처님께 유미죽을 올린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에선 수자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힌두교의 '수자타 템플'과 '힌두 템플' 대신, 경전을 근거로 수자타 스투파 근처의 우루웰라를 아자빨라니그로다 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정한다. 스님은 보드가야 마하보디대탑에서 이곳까지 '우유죽 공양 길'을 따라 걷는 순례를 제안하며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하고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기까지 일어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탄생지 룸비니와 부처님의 출가 행로, 2차 결집지 웨살리, 최초의 승원 왕사성, 꼬삼비 등을 거쳐 열반지 꾸시나가라에 이르러 〈대반열반경〉의 의미를 살핀다. 또 짬빠에서는 오늘날의 대중공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각라 호수에서는 "승가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오디샤주와 낙푸르에서는 오늘날의 인도 불교를 사유한다.

허정 스님은 순례기를 통해 묻는다. "우리는 왜 성지 순례를 하느냐"고. 책에서 전하고자 했던 스님의 답은 "성지란 곧 붓다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며 "성지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가을 여행 가방에 '쏙'



천년사찰 힐링숲길 걷기명상
여태동 지음
시간여행 / 1만8000원

사찰 숲이 주는 치유와 위안
명상 위한 계절별 추천 12선



올해 3월 대형 산불로 소실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최치원숲의 모습. 사진 제공=시간여행

산사의 숲길. 머릿속으로만 떠올려도 맑고 신선한 바람이 느껴진다.

〈천년사찰 힐링숲길 걷기명상〉은 불교신문 기자인 저자가 걷기 좋은 사찰 숲길을 소개한 연재 글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10여 년이 지나 책으로 묶은 이유는 사찰 숲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걷기 명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4장으로 나눠 계절별로 추천하는 숲길 22곳을 담았다. 만물이 깨어나는 봄날에는 고양 흥국사 숲 명상길, 녹은 짙은 여름에는 송광사 불일암 무소유길, 비우고 채우기 좋은 가을에는 정읍 내장사의 비자나무 숲길, 차가운 기운을 즐기는 겨울에는 상주 남장사의 석장승 숲길을 추천하는 식이다. 각 꼭지마다 걷기 명상 팁과 숲길 약도를 담았다.

특히 올해 3월 산불로 전소되기 전 고운사를 담은 글과 사진에 눈길이 머문다. 고운 최치원(857~?)이 머물며 가운루와 우화루를 지은 인연을 기려 고운사 숲길을 '최치원길'이라 부른다.

산문에 들어서면 반기던 오래된 소나무와 겹겹이 심긴 아기단풍은 산불로 이제 볼 수 없는 풍경이 됐다. 하지만 화재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활엽수를 중심으로 잎이 돋아 다시 숲이 일어나고 있다. 그 길을 걸으며 숲의 놀라운 생명력을 느껴 보는 것도 좋겠다.

여수령 기자



주말엔 산사
윤설희 지음
휴머니스트
1만9800원

디자이너가 펜으로 그린 산사
선암사 등 7곳 수묵담채화로



MZ 디자이너가 펜화로 그린 순천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 모습. 사진 제공=휴머니스트

"가톨릭 신자로 태어나 현재는 무교이며, 그림 그리고 글을 써 책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30대 직장인"인 저자는 "이 땅에 오랫동안 발 딛고 살았던 사람들의 건축"이 궁금해져 산사로 떠났다. 기나긴 역사를 넓은 공간에 품고 있는 사찰이야말로 한국 건축의 진수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10여 년간 대기업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저자는 2019년부터 100여 곳의 산사를 방문했고, 그중 가장 각별했던 일곱 곳을 섬세한 펜 그림으로 기록했다. 책에는 순천 선암사를 시작으로 영주 부석사, 부여 무량사, 김제 금산사, 남양주 수종사, 화순 운주사, 서울 봉은사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느 산사 기행서와 달리 만화와 펜화로 기록한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한국 건축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많은 시퀀스를 가진 공간"이라며 "그래서 주인공을 따라가며 감상할 수 있는 만화가 적합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한국적인 느낌을 담기 위해 점묘화 같은 수묵담채화 방식을 택했다. 직접 찍은 사진도 덧붙였다.

가을에 가볼 만한 곳으로는 수종사를 추천했다. 샛노랗게 물든 오백 살 넘은 은행나무와 물안개 자욱한 두물머리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